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수시/정시모집 교직적성 · 인성면접 [사범대학]

제시문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3년 15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의식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으로 교사가 으뜸에 꼽혔다. 부모가 바라는 직업으로는 1위 교사(25.3%)이고, 공무원(경찰, 장관 포함, 20.5%), 의사(7.2%)가 뒤를 이었다.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으로는 역시 교사(16.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공무원(15.0%), 상업인(자영업, 유통업·12.5%), 기업가(7.6%), 의사(5.4%), 교수(2.7%) 등의 순이었다. 탄탄한 직업 안정성과 방학, 여기에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혜택까지, 여러모로 교사의 인기는 식지 않을 분위기다. (…중략…)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교육과 학생에 대한 열정, 애정, 정직성, 리더십 등이 필요하며 원만한 수업진행을 위해 교사로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선생님들은 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 신체적으로도 힘든 직업이다. 수업을 하려면 오랜 시간을 서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붓기도 하고, 분필가루를 마셔가면서 상당 시간 목을 혹사하는 고충도 있다. 국가 미래를 짊어질 후세들을 키운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2006년 신문기사 발췌)

[물음 1]

위의 신문기사는 약 이십년 전인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 기사 내용이 2023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해 보세요.

[물음 2]

위의 기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직업으로서 교사는 좋은 직업인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물음 3]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본인의 동기와 이유를 말해 보세요.

제시문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의 지적 능력을 'IQ' 점수로 측정하는 지능검사는 편파적이고 제한된 방법으로 지능을 평가하며, 점수 자체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기존 지능 개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워드 가드너는 1983년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다수의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동일하다고 제안했다. 가드너가 사람들의 다채로운 능력을 표현할 수단으로 제시한 여덟 가지 '지능'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언어 지능: 말하거나 쓰기에서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논리-수학 지능: 숫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논리적 규칙이나 관계에 관해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공간 지능: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인식에 기반하여 변화를 가미할 수 있는 능력
- 신체-운동 지능: 자신의 신체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 음악 지능: 음악적 형식(예. 리듬, 음의 높낮이, 음색)을 인지하고 표현하며, 변형하거나 평가하는 능력
- 대인관계 지능: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
- 자기성찰 지능: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
- 자연탐구 지능: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수많은 동식물 종을 알아보고 분류하는 능력

[물음 1]

중간고사를 본 후, 자신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며 낮은 학업 의욕을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위 지문을 참고하여 어떻게 상담할지 이야기해보세요.

[물음 2]

학급 담임 교사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지능이 존중받는 학급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해보세요.

[물음 3]

학생들이 가드너가 제시한 다중지능의 여덟 가지 범주 중 두 가지 이상의 지능을 동시에 발휘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활동을 한 가지 제안해보세요.

제시문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K-컬처의 눈부신 약진, 스포츠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기초예술체육교육은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시를 위주로 돌아가는 교육 시스템 안에선 국어, 수학, 영어만이 제일이어서다. 내신은 물론 수능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이 설 자리는 우리 교육 안에 없다. 예체능 과목들이 학생들의 인식에서 잊히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예체능 과목은 집중이수제를 통한 몰아듣기 파행이 지속된 지 오래다. 1학기에 음악을 들으면 2학기에는 들을 수 없는 식이다. 중요도가 중요도인지라 예산 배정도 적다. 일부 학교에선 턱없이 적은 예산에 재료 구매와 악기 관리 등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전 A 고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는 “수업 다양화를 통해 학생 참여율을 높이려 애쓴다”며 “편성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악기 조율이나 학습재료를 구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1. 예체능 과목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2. 본인이 교사가 된다면 교육현장의 예체능 과목 소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3. 교육현장의 예체능 과목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또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제안해 보세요.